"국제사회, 北 도발 강력 대응 나서야"

李대통령, 美·日·英 정상들과 전화통화 강조
선진 우방국 긴밀한 공조로 강력제재 나설 듯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전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우방국 정상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북한 도발의 부당성과 세계 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영국 정상은 십분 공감하면서 긴밀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한 형식적 제재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진 우방국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정상이 이날 북한의 '혈맹'이자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한 목소리로 압박한 점도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일 내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했다.

간 총리도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이 북한에 무력 도발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중국 측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군사 도발에 대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지난번 천안함 사태의 책임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북한이 연평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에 포격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별다른 이견없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중국도 북한의 무리한 도발을 외면하기 어려워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부터 밤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4개국 정상과 잇따른 전화통화를 준비하고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도발 상황 보고받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로버트 게이츠(오른쪽 두번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왼쪽 두 번째 뒷모습)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리, 어떤 대응할까…

北 잇단 도발에 긴급논의 불가피
한국정부 입장 들은후 시작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금명간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의 대북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미국 핵 전문가의 증언이 나온 직후인 23일 터진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발각 뒤집어 놓은 극단적 행위이자, 세계 평화에도 중대한 위협 요인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사국들은 비공식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북한 도발과 관련된 긴급 회의 소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 프랑스의 한 외교관이 "오늘 내일 중으로 긴급회의 소집을 준비중"이라고 말한 것도 상황의 긴박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긴급회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안보리는 연평도 폭탄 공격으로 사실상 한반도에서 준전시 상황이 벌어지자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그러나 당장 긴급 회의가 소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공격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비쳐 볼때 한국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행위중 하나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국지적 분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분쟁은 당사국간 우선 해결"이라는 유엔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간 대화와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뿐 안보리 논의 회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남북한간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한 접촉이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제스처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북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미, 28일부터 연합훈련 실시"

美 항공모함 참가…中·北에 일정 통보

한국과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사진)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4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국 조지 워싱턴호 항모강습단은 일련의 해상훈련 실시 일환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9천600t급), 9천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DDG67)을 비롯한 스테담호(DDG63), 피체랄드함(DDG62) 등이 참가한다. 핵잠수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

미군 관계자는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으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이 훈련을 통해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한미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군은 대공방어 및 수상전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될 것"이라며 "조지워싱턴호는 이번에 훈련할 지역에서 그동안 수차례 작전과 연습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지워싱턴호는 작년 10월 서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 참가했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훈련일정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도 북한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미군측은 설명했다.

한편 조지 워싱턴호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를 떠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中 압박 없으면 추가도발 있을 것"

헤이든 前 CIA국장 "北, 저지르고 빠져나가는게 일상화"

마이클 헤이든 전 CIA(美중앙정보국) 국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이 압박하지 않는 한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200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CIA 국장을 지낸 그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상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북한의 경우 이런 도발을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고, 군사도발을 해도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이 당한 최악의 결과가 유엔 차원의 가벼운 비난이었고 이마저도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아, 북한이 언제든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평도 공격의 의도와 관련, "지금이 김정은에게는 권력장악을 과시하고 김일성만큼 강력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김정일 위원장도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 북한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몰고 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 지금은 관련국들이 대북협상에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동안 경수로 건설, 중유 공급, 금강산 관광 같은 현안들에 대해 북한과 합의가 있었지만, 사실 북한은 '합의'라는 걸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지금도 북한은 뭔가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CIA국장 재직 시절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좋은 증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영변에 농축시설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유엔사, 북한군에 장성급회담 제의

"정전협정 유지 책임 권한으로 北 위반사항 여부 조사"

유엔군사령부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사건으로 인한 긴장 완화와 상호 정보교환 등을 위해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위기상황을 완화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북한군측에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에 대한 책임권한으로 이번 도발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북측의 위반사항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은 도발적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협정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샤프 사령관은 "한국군은 전문적인 군대이며 북한의 공격 후 신속한 대응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켰다"며 "우리는 이 위기상황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굳건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빰치는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깜박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